

## 2012 釜山双年展(Busan Biennale 2012)

双年展，是国际当代视觉艺术最高级别的展示活动，是推出世界各国新艺术成就的重要窗口，是全国各地重要的艺术节日。2012年釜山双年展的主题是‘学习的庭院’。我们所熟悉的‘学习(Learning)’这个词的本义指，

‘通过过去积累的经验，学习并掌握新的知识、技术；或者是在意识层面上获得新功能或新知识’。通常，学习行为发生在相对地知识或经验丰富的一方(老师)向知识或经验相对缺乏的一方(学生)进行的单方面的交流，具有垂直性，被动性地传播。

但，2012年釜山双年展中的‘学习’，更强调双方交流时的水平性和能动性。2012年釜山双年展的参观客，将不再是过去通过单调的听课获取知识的启蒙对象，也将不是肤浅地‘娱乐一下’的消费集团。不同的人有不同的生活经验和独一无二的人生。于是人与人之间进行的真诚交流与共享，将会是2012年釜山双年展主题的重要立足点。具有个人风格和专门职业知识的特定艺术家工匠们，与参观客间形成的‘协作’，保证了作品的完成度。而且，如此的交流过程在‘学习的庭院’的大环境下里将会具有更多的生机和创意力，艺术的神秘性和艺术内涵的真谛也将栩栩如生地传达出来。

2012年的釜山双年展—‘学习的庭院(Garden of Learning)’，通过从单纯的展示升华到以参观客为中心的艺术交流活动，力求将艺术及艺术的自律性向大众进行展示和传播。

### 活动简介

- 主题:‘学习的庭院(Garden of Learning)’
- 时间:2012年 9月22日 -11月24日(六十四日间)
- 地点:釜山市立美术馆,釜山文化会馆,釜山镇火车站,釜山广安里Meworld等
- 作品展示:106余名艺术家的 330部作品左右
- 活动构成:主体展示,特别展示,双年展都市广场(Biennale urban square)等
- 举办方:韩国釜山广域市,(社)韩国釜山双年展组织委员会
- 后援:韩国文化体育观光部

### 主体展示

- 展示主题:‘学习的庭院(Garden of Learning)’
- 时间:2012年 9月22日 -11月 24日(六十四日间)
- 地点:釜山市立美术馆 等
- 作品展示:41余名艺术家的200部作品左右
- 内容:现场展示,艺术小学院,演讲,教育活动等
- 展示指导:Roger M. Buerger(德国)

### 特别展示

- 展示主题:‘外面的花园’
- 时间:2012年 9月22日 -11月24日(64日间)
- 地点:釜山文化会馆,釜山镇火车站,釜山广安里Meworld
- 展示作品:65名艺术家的 130部作品左右
- 展示策划:展会企划委员共同策划(9名)  
(Ah Ram Kim, Yong Min Kim, Jeong Eun Kim, Ah Young Baek, Ji Min Song, Hoon Suk Lee, Christina Choi, Sun Tae Ham, Na Young Huh)

### 双年展都市广场

#### 话说双年展

- 时间:2012年 9月24日 -10月27日(共五回)
- 地点:釜山市立美术馆(讲堂,外厅)等
- 内容:通过各种演讲,提供与参观客进行交流的机会
- 活动构成:专家讨论会,艺术家现场座谈会,展会企划委员座谈会,亚细亚双年展论坛,艺术教育家座谈会,谈话秀等

### 共乐双年展

- 时间:2012年 9月23日 -11月24日 10:00 -18:00
- 地点:釜山市立美术馆(户外公园区),广安里海边一带
- 活动:参观客直接参与的节庆活动  
(活用集装箱搭建展台)
- 活动构成  
Cube-1: Intervene Image, Interactive Artwork Contest, Biennale Picnic  
Cube-2: 国内外艺术家作品收藏展,研讨会,节日演出等

### 画廊联合展

- 时间:2012年 9月22日 -10月6日(15日间)
- 场所:釜山地区所在的画廊(釜山内6个区镇19处)
- 展示作品:66名艺术家的 409部作品左右

## 2012 釜山ビエンナーレ (Busan Biennale 2012)

2012釜山ビエンナーレは‘学びの庭(Garden of Learning)’というテーマで進行される。‘学び(Learning)’の辞書的意味は「過去の経験を通して新たな知識、技術を習い実らせること。’または、機能、知識を意識的に習得すること」となっており、われわれはこのような‘学び’の意味を知識と経験において、相対的優位者がそうでない者に一方的に伝える垂直的・受動的なものとして受けいれている。

しかし、2012釜山ビエンナーレ‘学びの庭(Garden of Learning)’における‘学び’は水平的・能動的である。観覧客は講義を聞く必要のある啓蒙の対象でなく、また、娯楽だけを追求する消費主義集団でもない。人にはそれぞれ独自の人生の形態と経験があり、両者間で生じる互いの真摯なアプローチと共有は2012釜山ビエンナーレにおいて‘学び’の重要な出発となる。また、自身の個人的、職業的専門知識が特定作家と相互作用する「協業」の過程は、作品の重要な要素となる。このような疎通の過程は「学びの庭」にさらなる活気を吹き込み、より創意的な作品に仕上がるだけでなく、芸術の神秘と真の芸術に対する洞察力習得を可能にするとと言える。

2012釜山ビエンナーレ‘学びの庭(Garden of Learning)’では、結果物中心の展示を超え、制作過程と参加した観客が中心となる進化した芸術と芸術の自律性が確認できる。

### 行事概要

- テーマ:‘学びの庭(Garden of Learning)’
- 期間:2012. 9.22 -11.24(64日間)
- 場所:釜山市立美術館、釜山文化会馆、釜山镇駅舎、广安里ミーワールド など
- 出品作品:約106名 330点前後
- 行事構成:本展示、特別展、ビエンナーレ・アーバン・スクウェアなど
- 主催:釜山広域市、(社)釜山ビエンナーレ組織委員会
- 後援:文化体育観光部

### 本展示

- 展示テーマ:‘学びの庭(Garden of Learning)’
- 期間:2012. 9. 22 -11.24(64日間)
- 場所:釜山市立美術館など
- 出品作品:約41名 200点前後
- 内容:展示,学び委員会,講演,教育プログラムなど
- 展示監督:ロジャー・M・ブルゲル(ドイツ)

### 特別展

- 展示テーマ:‘共同企画者決定後協議選定’
- 期間:2012. 9.22 -11.24(64日間)
- 場所:釜山文化会馆、釜山镇駅舎、广安里ミーワールド
- 出品作品:65名 130点前後
- 展示企画:キュレーター共同企画(9名)  
(キム・アラム,イ・フンソク,チェ・ジヨン,キム・ヨンミン,キム・ジョンウン,ペク・アヨン,ソン・ジミン,ホ・ナヨン,ハム・ソンジェ)

### ビエンナーレ・アーバン・スクウェア

#### Talk on Biennale

- 期間:2012.9.24~10.27のうち、計5回
- 場所:釜山市立美術館(講堂,ロビー)など
- 内容:様々な進行方式の講演を通した観覧客との疎通の場
- 行事構成: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アーティスト・オン・トーク、キュレーター・トーク、アジアビエンナーレ・フォーラム、アートエデュケーター・トーク、トークコンサート

### Play with Bien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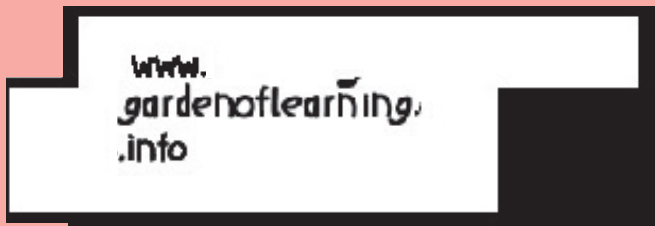
- 期間:2012.9.24 -11.24 10:00 -18:00
- 場所:釜山市立美術館(野外公園)、广安里ビーチ帯
- 内容:コンテナブースを活用した観覧客参加の祭り行事
- 行事構成  
Cube-1: Intervene Image, Interactive Artwork Contest, Biennale Picnic  
Cube-2: 国内外のアーティストアーカイブ、ワークショップ、公演など

### ギャラリー・フェスティバル

- 期間:2012.9.22 -10.6(15日間)
- 場所:釜山地域のギャラリー(参加ギャラリー 6区19ヶ所)
- 出品作品:66名 409点前後



611-809,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 주경기장 38호  
38, Busan Asiad Main Stadium, 344 worldcup st. Yeonje-Gu, Busan,  
611-809, Korea  
Tel : +82-51-503-6111 Fax : +82-51-503-6584



바움의 정원 / 2012 부산비엔날레  
2012 9.22-11.24

www.busanbiennale.org

## 2012부산비엔날레

2012부산비엔날레는 ‘배움의 정원(Garden of Learning)’이란 테마로 진행된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배움(Learning)’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기술을 배워서 익힘. 또는 기능, 지식을 의식적으로 습득함’이다. 우리는 이러한 ‘배움’의 의미를 지식과 경험에 있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일반적으로 전하는 수직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그러나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Garden of Learning)’에서 ‘배움’은 수평적이고 능동적이다. 관람객은 강의를 들어야 할 절실한 필요를 가진 계몽의 대상이 아니며, 그렇다고 오락만을 추구하는 소비주의 집단도 아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의 고유한 삶의 형태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서로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공유는 2012부산비엔날레에서 ‘배움’의 중요한 출발이 된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전문지식이 특정한 작가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협업’의 과정은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배움의 정원’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고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예술의 신비함과 예술이 진정 의미하는 바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할 것이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Garden of Learning)’은 결과물 중심의 전시를 넘어 과정과 참여한 관객이 중심이 되는 진화된 예술과 예술의 자율성을 보여줄 것이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행사개요

- 주제: ‘배움의 정원(Garden of Learning)’
- 기간: 2012. 9. 22 - 11. 24 (64일간)
- 장소: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진역사, 광안리 미월드 등
- 규모: 106여명 330점 내외
- 행사구성: 본전시, 특별전, 비엔날레 얼반스퀘어 등
- 주최: 부산광역시,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본전시

- 전시주제: ‘배움의 정원(Garden of Learning)’
- 기간: 2012. 9. 22 - 11. 24 (64일간)
- 장소: 부산시립미술관 등
- 출품작품: 41명 200점 내외
- 내용: 전시, 배움위원회, 강연, 교육프로그램 등
- 전시감독: 로저 M. 뷔르겔(독일)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특별전

- 전시주제: ‘Outside of Garden’
- 기간: 2012. 9. 22 - 11. 24 (64일간)
- 장소: 부산문화회관, 부산진역사, 광안리 미월드
- 출품작품: 65명 130점 내외
- 전시기획: 9명 공동기획 (김아람, 김용민, 김정은, 백아영, 송지민, 이훈석, 최지영, 함선재, 허나영)
  - ※자문위원: 류병학(독립큐레이터)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비엔날레 얼반스퀘어

- Talk on Biennale
- 기간: 2012. 9. 24 - 10. 27 (총 5회)
- 장소: 부산시립미술관(강당, 로비) 등
- 내용: 다양한 진행방식의 강연을 통한 관람객과 소통의 장
- 행사내용: 패널디스커션, 아티스트 온 토크, 큐레이터 토크, 아시아비엔날레 포럼, 아트에듀케이터 토크, 토크콘서트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Play with Biennale

- 기간: 2012. 9. 23 - 11. 24 10:00 - 18:00
- 장소: 부산시립미술관(야외공원), 광안리 해변 일대
- 내용: 전시행사의 특성을 담은 관람객 참여 축제행사
- 행사내용
  - Cube-1: Intervene Image, Interactive Artwork Contest, Biennale Picnic
  - Cube-2: 국내·외 아티스트 아카이브, 워크샵, 공연 등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갤러리 페스티벌

- 기간: 2012. 9. 22 - 10. 6 (15일간)
- 장소: 부산지역 갤러리(참여화랑 6개구 19개소)
- 전시작품: 66명 409점 내외

## Busan Biennale 2012

The Busan Biennale 2012 has chosen ‘Garden of Learning’ as its theme.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learning’ is a process of gaining new knowledge or skills through past experience, or of consciously obtaining skills or knowledge. It tends to be considered a vertical and passive process in which those who hold a dominant position in terms of knowledge or experience unilaterally transfer such knowledge or experience to the others.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However, learning in the ‘Garden of Learning’ is a horizontal and active process. The audience are neither the subject for enlightenment who desperately need a lecture nor a consumerist group who just seek entertainment.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All of them have their own style and experience of life, and a sincere approach and sharing among them i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of ‘learning’ in the Busan Biennale 2012. Also,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in which people’s personal and professional expertise interacts with artists serves as a key element in creating artworks to be presented at the Biennale. This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artists make the ‘Garden of Learning’ a more lively and more creative forum, helping people gaining the insight on the mystery and true meaning of art.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The Busan Biennale 2012, under the theme of ‘Garden of Learning’ will move beyond a typical exhibition focusing on artworks exhibited and demonstrate the evolution and autonomy of art which emphasizes the process of creating artworks and the audience who participate in the process.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Outline

- Theme: ‘Garden of Learning’
- Period: Sep. 22 - Nov. 24, 2012(64 days)
- Venue: Busan Museum of Art, Busan Cultural Center, Busanjin station, Gwangalli Meworld etc.
- Artworks: 330 artworks of 106 artists
- Organization: Main Exhibition, Special Exhibition, Biennale urban square, etc.
- Host: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 Main Exhibition

- Exhibition theme: ‘Garden of Learning’
- Period: Sep. 22 - Nov. 24, 2012 (64 days)
- Venue: Busan Museum of Art etc.
- Artworks: 200 artworks of 41 artists
- Contents: Exhibition, Learning council, lectures, educational programs, etc.
- Artistic Director: Roger M. Buergel (Germany)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Special Exhibition

- Exhibition theme: ‘Outside of Garden’
- Period: Sep. 22 - Nov. 24, 2012 (64 days)
- Venue: Busan Cultural Center, Busanjin station, Gwangalli Meworld
- Artwork: 130 artworks of 65 artists
- Organization of exhibition: To be jointly planned by 9 curators (Ah Ram Kim, Yong Min Kim, Jeong Eun Kim, Ah Young Baek, Ji Min Song, Hoon Suk Lee, Christina Choi, Sun Tae Ham, Na Young Huh)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Biennale Urban Square

- Talk on Biennale
- Period: Sep. 24 - Oct. 27, 2012 (5 times)
- Venue: Auditorium and lobby of the Busan Museum of Art etc.
- Contents: A forum for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through a variety of lectures
- Organization : Panel discussion, Artists on talk, Curator talk, Asian Biennale forum, Art educator talk, Talk concert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Play with Biennale

- Period: Sep. 23 - Nov. 24, 2012 10:00 - 18:00
- Venue: Busan Museum of Art (Outdoor Sculpture Park), Gwangalli beach
- Contents: A festival based on the audience’s participation
- Organization
  - Cube-1: Intervene Image, Interactive Artwork Contest, Biennale Picnic
  - Cube-2: Korean and foreign artists’ archive, workshops and concerts, etc.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 Gallery Festival

- Period: Sep. 22 - Nov. 6, 2012 (15 days)
- Venue: At galleries in Busan (19 galleries in 6 districts)
- Artwork: 409 artworks of 66 artists

## ‘배움의 정원(Garden of Learning)’

2012 부산비엔날레는 작가와 관람객의 협업을 중심으로 한다. 협업이 지속적인 정서적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성공하려면, 작품의 제작과 마찬가지로 협업도 비엔날레 준비의 필수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오브제 뿐 아니라 그 창조 과정을 견인하는 시적인 논리에도 접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것이 교육이든 즐거움이든, 예술의 모든 진정한 부분의 구현에 동반되는 지적인 작업과 약간의(그러나 아주 적지는 않은) 위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물론 모든 예술가가 사람들이 예술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향과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술가들 역시 예민한 대중과 함께 자신의 제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얻는 것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작품을 단순히 발표하는 것 이상을 원하며 그들 역시 작품이 공동체에 깊고 지속적인 효과를 갖기를 바란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시민으로 구성된 ‘배움위원회’ 는 질문을 품고 있는 일반 관람객과 부산의 도시적·역사적·정신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개별 작가들을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 작품과 장소 간의 연계가 모호하고 장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피상적이라는, 대다수 비엔날레가 지닌 구조적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이 예술적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배움위원회’ 멤버들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작품을 소유하며, 그것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품게 된다. 사적인 애착과 개인적 전문지식이 동반된 예술적 과정·결과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이해는 예술 교육에 있어 주된 자산이다. 이러한 민주적 예술 교육 방법은 예술과 그 수용자간의 문턱을 현저하게 낮춰준다. 의미는 더 이상 전문가들에 의해 위계적으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만의 언어를 개발한 사람들에 의해 소통된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이러한 접근방식의 또 한 가지 이점은 부산 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세대간 만남(아이들과 노인들)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10대 등 특정 타겟 집단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의 모습

예술의 마법, 미스터리, 수수께끼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민주적인 배움의 과정이라는 아이디어를 2012부산비엔날레의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이 전시의 핵심목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할 수 있는 작품과 커뮤니티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